

# 뻥~한 KIA 타선, 새 해결사가 필요해

개막 첫 주 2승 4패 초라한 성적  
베테랑 선전 속 기대주들 아쉬움

수비 실수 속출·병살타 남발  
고비마다 번번이 기회 무산

스피드·장타력 약점 고민  
윌리엄스 감독, 새 조합 찾기 돌입



터커



최형우



김선빈



‘호랑이 군단’의 순위 싸움을 위해 타선에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령탑 윌리엄스 감독을 앞세운 KIA 타이거즈는 개막 첫 주를 통해 1차 전력 평가를 받았다. 상대는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 ‘우승 후보’와 ‘하위권 라이벌’로 꼽히는 다른 전력의 두 팀과의 시리즈에서 KIA는 모두 고전하면서 2승 4패에 그쳤다.

2승을 거둔 경기에서 각각 16안타, 15안타의 맹타를 휘두르기는 했지만 반대로 두 경기에서 두 자릿수 실점을 기록했다. 단 한 점도 뽑지 못한 경기도 있었다. KIA는 예측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전력으로 약팀의 모습을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벤치의 예상이 맞아떨어졌다. 새로 KIA를 맡은 송지만 타격 코치는 개막 전 “나와 감독님, 팀이 생각하는 확실한 선수는 터커, 김선빈, 김주찬, 최형우 4명 정도밖에 없다. 이게 우리 팀의 현 상황이다”며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했다.

예상대로 2군에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김주찬을 제외한 터커, 김선빈, 최형우가 KIA 타선을 이끌고 있다.

터커는 2020시즌 KBO리그 병살타 1호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의 주인공이 됐지만 지난 7일 키움전 썬기포와 함께 타격감 조율을 끝내고, 10일에는 삼성을 상대로 연타석 홈런 포함 5안타 6타점 맹활약을 하며 신홍 해결사로 떠올랐다.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한 최형우도 7일 결승타 주인공이 되는 등 개막 첫 주 연속 안타 행진을 펼쳤다. 김선빈도 개막 첫 주 두 경기에서 3안타를 만들어내는 등 확실한 공격 카드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벤치의 예상대로 ‘확실한 카드’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대했던 자원’들의 출발은 좋지 못했다.

특히 지난 시즌과 달리 주전으로 시즌을 시작한 ‘기대주’들의 플레이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속출했다. 부상이 겹친 주전수 자리는 최원준의 몫이 됐고, 이범호의 은퇴 뒤 박찬호가 임시 투입됐던 3루는 장영석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유민상은 김주찬이 빠

진 1루 자리에서 스타트를 끊었다.

하지만 세 선수 모두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다. 또 중요한 순간 타석에서 집중력을 기대했던 장영석과 유민상의 첫 주는 무기력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최원준의 타격에 안정감이 더해진 부분은 위안거리. 지난 시즌 KIA의 히트 상품이었던 박찬호도 연습경기 부진을 털어내고 개막에 맞춰 타격 컨디션을 끌어올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매일 라인업에 변화를 주면서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을 찾고 있다. 스피드와 장타력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줘야 할 선수’들의 한방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은 반갑다.

그러나 무딘 스피드와 기본 전력으로 꼽았던 3인 외의 성적은 아쉽다.

트레이드와 FA계약 실패로 비어버린 ‘뚝타자’(이명기) ‘중심타자’(안치홍)의 빈틈이 그만큼 더 커 보이는 KIA의 시즌 초반이다. 타석에서 ‘깜짝 스타’가 필요한 새로운 한 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우천 취소 경기, 다음날 이어서 승부 본다

KBO 특별 서스펜디드 세척 발표  
동일 대진·더블헤더 없을 경우 해당  
특별 엔트리 적용...정원 1명 추가

KBO가 2020 정규시즌 특별 서스펜디드 경기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혹서기(7~8월)를 제외한 5, 6, 9, 10월 중의 3연전(화·수·목) 및 2연전(화·목·토)에서 5회 정식 경기 성립 이전에 우천 등의 이유로 경기가 중단될 경우 노게임으로 선언하지 않고, 다음 날 서스펜디드 경기로 진행한다.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어 경기를 하게 된다.

단, 다음 날 동일 대진 경기가 편성되어 있고, 해당 주에 더블헤더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다음 날 서스펜디드 경기가 열린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기는 노게임 선언 후 ‘2020 KBO 정규시즌 경기 취소 시 시행세칙’에 따라 재편성한다.

서스펜디드 경기 또는 기존 편성된 경기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

서스펜디드 경기(1차전)와 기존 편성된 경기(2차전) 중 한 경기만 열리게 될 경우, 1차전이 취소된다. 2차전만 열리면 1차전은 노게임으로 처리해 재편성한다.

1차전이 취소되고 2차전 도중 경기가 중단되면, 1차전은 노게임으로 나중에 치르게 된다. 중단된 2차전은 다음날 서스펜디드 경기로 진행한다. 1차

전이 열리고 2차전이 취소되면 다음 날 더블헤더로 열린다.

1·2차전이 모두 취소되면 다음날 더블헤더 경기를 편성한다. 3연전, 2연전 시리즈 때 취소된 경기는 추후 재편성한다.

더블헤더와 마찬가지로 서스펜디드 경기에도 특별 엔트리가 적용된다.

특별 엔트리는 기존 정원에 1명 추가해 등록할 수 있고, 추가 등록된 선수는 다음날 자동 말소된다. 대신 해당 선수는 말소일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아도 재등록할 수 있다.

서스펜디드 경기를 포함한 더블헤더는 9이닝 경기로 진행된다. 경기 중단 시점에 따라 경기 시작 시간이 달라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EPL, 다음달 재개 청신호

英, 코로나 봉쇄 조건부 완화 계획 발표...실내 스포츠 행사 가능성 언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멈춰 있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이르면 6월 1일부터 시즌을 재개할 길이 열렸다.

영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대한 조건부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등 실내 스포츠 행사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방송 중계가 이뤄지는 무관중 문화·스포츠 이벤트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6월 1일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장에 관중을 들일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눈에 띄는 정도로 감소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3월 14일 중단됐으며, 아직 92경기를 더 치러야 시즌을 마칠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6월 8일을 리그 재개 목표로 잡고 각 구단이 소규모 훈련을 하는 등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스포츠 경기 재개 가능성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희망’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무관중이라도 스포츠 경기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6월 초 재개에 힘을 더한다.

프리미어리그는 이날 관바로 구단 대표자 회의를 열어 리그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목표일’이었던 6월 8일을 ‘잠정 재개일’로 잡고 준비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프리미어리그 재개에 큰 걸림돌이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봉쇄조치 완화 계획이 설명돼있는 50쪽짜리 문서에 따르면 테러처럼 코로나19 위험 정도를 판단해 그에 맞는 대응을 내놓는 5단계 경보 체제가 도입됐다.

영국은 현재 ‘4단계’에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등 스포츠 행사 재개는 ‘2단계’까지 상황이 나아져야 가능하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존슨 내각의 목표는 6월 1일까지 2단계로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이겠지만 이는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1만9183명으로 하루 새 3923명 늘어났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3만1855명으로 269명 추가됐다.

/연합뉴스

## 메이저리그 7월 초 개막 초읽기

MLB 사무국 개막 방안 승인  
계입수 162경기서 82경기로

미국프로야구(MLB) 구단주들이 MLB 사무국이 준비한 7월 정규리그 개막 방안을 12일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롭 맨프레드 MLB 사무국 커미셔너는 구단주 승인을 받은 이 제안을 13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와 본격적으로 협상한다.

MLB 사무국은 그간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온 여러 시나리오를 7월 개막안에 포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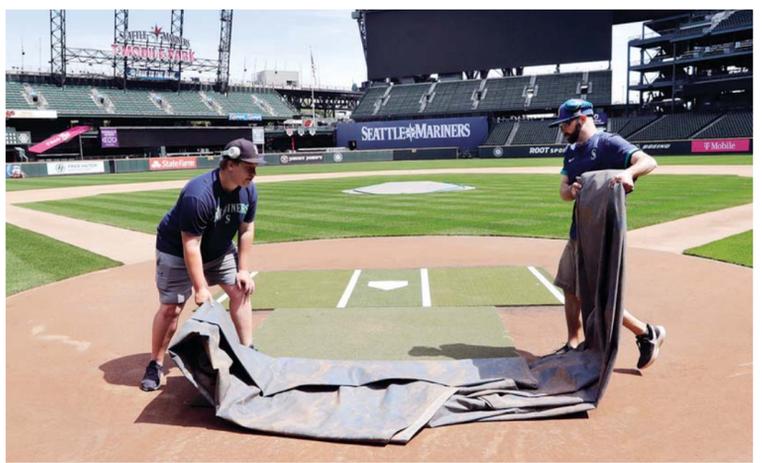
먼저 정규리그는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이 있는 주간에 시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늦게 시작되기에 정규리그 경기 수는 팀당 162경기에서 82경기로 대폭 줄인다.

각 팀은 3월 초 중단된 스프링캠프를 6월 중순 다시 열어 정규리그 개막을 준비한다. 단, 다른 팀과 격돌하는 시범경기는 치르지 않는다.

또 각 팀은 지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정규리그에서 홈구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내셔널·아메리칸리그 대신 인접한 팀끼리 벌이는 리그로 재편되고, 지명 타자를 모두 도입한다. 이에 따라 양대리그 동부·중부·서부지구로 이뤄진 현재 체제가 리그 구분 없이 올해에만 10개 팀씩 배정된 동부·중부·서부지구로 편성된다.

MLB 사무국은 정규리그를 줄인 대신 포스트시즌(PS)을 확대해 출전팀 수를 현재 10개 팀에서 14개 팀으로 늘렸다.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의 홈구장 관리원들이 12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 홈플레이트를 덮고 있던 방수포를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 협상의 핵심인 ‘돈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각 구단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를 경우 입장료 관련 수입이 사라지는 점을 고려해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구단 수입의 절반을 선수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무관중 경기로 열리면 선수들의 연봉도 추가로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메이저리그에선 처음으로 구단 수입의 50%를 선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몸값을 보전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3월 MLB 사무국과 합의한 ‘코로나19 임금 협상’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주장하는 선수노조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규리그 개막 연기에 따라 MLB 사무국이 3월 말부터 60일간 선수들에게 선급금 개념으로 1억 7000만달러를 재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선수들은 시즌 시작 후 경기 수에 비례한 연봉을 받는다는 내용이 코로나19 합의의 뼈대를 이룬다. /연합뉴스